



「전기인의 날」 관련  
자랑스런 전기인상 수상자 인터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 (협회회원번호. 74757)

◆ 프로필

- 제17·18대 국회의원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 민주개혁총복연대 대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회장
- 민주당 대변인

취재 | 제도연구실 손영선

**Q 국회의원중 유일하게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 1976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민주화운동을 하다 긴급 조치 9호 위반으로 수배를 받고 학교에서도 제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학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서울 성수동에 조그만 전기관련 업체에 노동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전기관련 현장업무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업무는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으나 전기분야에 애착과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 관련지식습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100만 전기인의 한명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Q 의원님께서 과거 전기업체를 설립하여 경영인으로써 성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족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정치활동이라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 전기관련 자격증 취득 후, 저는 그 동안의 배운 전기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인 충북에서 1986년 전기공사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젊은 시절 전기노동자로 활동한 실무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젊은 혈기와 끊임없는 도전정신이 저희 업체를 충북지역에서 유망한 전기업체로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인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열심히 산업현장

을 뛰던 그 때에도 사회에 대한 고민과 실천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젊은 개혁가들과 생각을 같이했고, 그들과 다가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지역 시민운동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게 되었고 적극적인 정치개혁을 단체의 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심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실정치에 참여하고자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과 실업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전기에 몸담고 있고 미래를 전기에 맡기고 노력하시는 전기인 여러분!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화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기술이 모자라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을 답습하거나 모디파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 기업의 광고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반도체 LCD 등 많은 분야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호도 등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이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Global화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제 표준화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이공계 지원대책이나, 우대정책 등이 부족하고 이공계 전공자들의 대우가 좋지 않아 이공계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지만, 엔지니어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될 날이 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링 분야는 도전이자 미래입니다”

미래가 있는 이공계는 기피대상이 아니라 도전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전력산업 선진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전기인 여러분! 요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별판인 송도에 천지개벽” 이것이 우리 엔지니어의 현주소이자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는 항상 無에서 有를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특히 우리 전기인 여러분은 항상 선두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냅니다.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향후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정책산업에 전기는 항상 선두에서 모든 것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전력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 “전기인”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기인들의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에 비해 아직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기인 여러분 저는 에너지 자급자족 “삼소섬의 기적(덴마크의 친환경섬)”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섬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급 100%를 달성한 조그만 섬입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전기인의 손으로 만들면 우리 전기인들을 기적을 만드는 창조자라 불러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전기인의 권익향상과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이번 「제6회 전력기술진흥대회 및 전기인의 날」 행사에서 ‘자랑스런 전기인상’을 수상하셨는데 수상 소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국회의원이지만 전기인의 한사람으로서 전기인의 축제인 전기인의 날에 너무나도 큰 상을 받게 된 것을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은 앞으로 우리전기인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려는 뜻으로 저에게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런 전기인상”에 맞는 전기인이 되도록 멈추지 않고 항상 노력하며, 전기인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Q** 100만여 전력기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A** 우리 생활속에 없어서는 안되는 전기, 국가전력산업발전과 미래성장을 주도할 기술력을 가진 전기인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저는 공기와 전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속에 가장 필요하고 없다고는 상상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인 여러분! 우리가 만들고 유지·관리되는 전기는 국가산업발전과 국민경제를 위해 24시간 힘차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국가기반산업이 발전되고 여러분이 있어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 발전이 가능합니다. 100만 전기인의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 할 것이며, 항상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길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전기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기인 모두 국가경제발전의 역군이라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다함께 힘차게 약진합시다. ❖

##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글 \_ 노영민

그대의 꿈이 무엇이 되었든  
그대의 꿈이  
간절함을 담았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대의 꿈이 무엇이 되었든  
그대의 꿈이 진실함을 담았다면  
하늘아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대의 꿈은  
무엇이었든 그대의 꿈은  
벌써부터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대의 꿈이  
그대의 눈이며 있더라도  
그대의 꿈은  
벌써부터 그 눈으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대의 꿈이  
그대의 입이며 있더라도  
그대의 꿈은  
벌써부터 그 입으로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대여  
벌써부터 하나였던 그대여  
그 간절함으로  
그 진실함으로  
그대의 꿈은  
벌써부터 꿈이 아니었습니다.